



4면

드론산업 장기발전계획추진방향 모색

전주매일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음 6월 5일) 제28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승수 전주시장(사진 오른쪽부터 세번째)과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13일 시장실에서 전주시-전북은행 탄소중립 업무협약 을 체결 했다.

기후위기 극복 '맞손'

전주시-전북은행, 2050 탄소중립 협약 체결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시민 금리우대 서비스 지원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ESG 사업 추진할 경우
시 탄소중립 사업과 연계

'기후 액션 플랜' 구체화
이행사항 추진·점검키로

전주시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로 선언한 가운데 지역 거점은행인 전북은행이 전차차 인프라 구축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적극 동참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13일 시장실에서 '전주시-전북은행 탄소중립 업무협약' 을 체결 했다.

이날 협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시민 위한 금리우대 서비스 지원 ▲일상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실천 ▲석탄금융 축소와 기후금융 확산 ▲ESG 사업 추진 시 전주시 탄소중립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기후 액션 플랜(Climate Action Plan)' 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이행사항들을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의 추진 계획에 발맞춰 전북은행은 영업점별로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본점 주차장 내에는 올 연말까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서 법인 리스 차량들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건물 신축 시 에너지효율화 시스템(BEMS)을 설치하고 모든 전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단열시설을 보강하는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는 금리 우대혜택을 주고, 탄소를 적게 배출한 친환경 기업에는 대출 이차보전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와 전북은행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점심시간 불필요한 전동 승용 ▲전자기기 에너지절감 시스템 기반 확충(전자타이머콘센트

등) ▲구내식당 저탄소 식단의 날 운영 ▲탄소중립 캠페인 지속 실시 등 일상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제도로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날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지속 체결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은 필수조건이 됐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기후변화 대응 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숨 쉬고 꿈꾸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금융계를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전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전환 ▲전망그루 정원도시 확대 조성 ▲폐기물 저감 및 녹색지원 전환 ▲지역 먹거리 활성화 및 친환경 농법 지원 ▲시민 환경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시스템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생태문명 시대 '생생 아이디어' 로 전환

도, '우수' 12건 선정
'청정 전북에서 즐기는
친환경 캠핑' 금상 수상
'전북도만의 생태적인
도로 조성' 등은 은상



전북도가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도가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미래!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문명 시대'라는 주제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도민의 참신하고 우수한 8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실·국 의 검토의견을 참고, 1차 실무조사 및 2차 최종심사를 통해 총 12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제안은 환경과 산업·에너지, 자원순환, 공간 등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금상을 수상한 최은정씨는 '청정 전북에서 즐기는 친환경 캠핑'을 제안,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이용자에게 지역상품권 지급, 음식물 쓰레기로 거름 만들기 등 자원순환을 도모하며, 친환경 특수 캠핑장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

할 것을 제안했다. 은상의 박지원씨는 '전북도만의 생태적인 도로 조성'을 제안, 일몰 적이고 확실적인 도로 형태를 벗어나 도민 참여로 생태도로 시안을 확정하고, 생태도로 스탬프 앱 개발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은상 수상자인 오성준씨는 '전북형 수소 마일리지 도입 및 수소도시 명예도민증 발급' 제안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수소산업 이용과 수소산업 중심 그린 에너지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도는 채택된 12건의 우수제안을 관련부서의 내실있는 추진계획 수립으로 정책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군과의 협력, 컨퍼런스 등을 통해 생태문명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문명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생태문명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로 기초강연 정책포럼 분과 토론회 및 기업의 생태문명 실천사례 등 생태문명 컨퍼런스를 오는 9월 중에 개최해 도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비도약 정책포럼'을 통해 생태문명을 공론화·구체화해 종합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생태문명 전환 공모 제안에 참여한 주민도 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의 시책화를 지원하고 생태문명 추진체계 구축 및 인식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8개기관, '전북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 성공 한마음

내달 중순부터 우체국 e-post서 운영... 도 농어촌종합센터가 총괄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내 155개 법인, 280여 개의 다양한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농촌마을과 마을기업의 우수제품을 한곳에 모아놓은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을 위해 도내 8개 기관·단체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운영되는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는 농촌마을과 마을기업의 우수농산물과 가공식품, 추석용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다양한 상품들을 합친된 가격으로

우체국 e-post(www.epost.go.kr)에서 기획전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와 연계해 오는 9월 11일에는 한가위 큰 장터 인기상품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년도부터 온라인 판매로 전환했고, 참여기업들의 관심 증대로 전년도에 비해 참여 법인은 22개 판매 제품은 1.6배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마을기업은 이번 온라인 한가위 큰 장터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께서도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비대면 한가위 도농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맺은 8개 기관·단체는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정보화마을 협의회, 광역자활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삼락장터 직거래사업단이며,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병철)가 한가위 큰 장터를 총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慶 한국해상풍력(주) 부안으로 본사이전 祝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시작!

한국해상풍력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한국해상풍력이 되겠습니다

한국해상풍력(주)
Korea Offshore Wind Power